교육문화연구 제21-5호(2015년), pp. 145~177
일반논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김의연*(인천한누리학교) · 김미순 · 황해영(인하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문헌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PICO-SD(연구참여자, 중재연구, 통제집단, 연구결과, 연구설계)검색전략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RISS, KISS, Korea Med, Pubmed, Scopus와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다. 최초 검색 문헌은 총 2,820건이었고, 분석기준을 통해 선정한 논문은 19편(국내 13편, 국외 6편)이었다. 데이터는 연구설계, 연구참여자의 특성,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결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6-21세였다. 둘째,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가 47.4%, 단일군 전후연구가 31.6%로 나타났다. 셋째, 예술치료가 47.4%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근거능력을 갖춘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다문화학생, 심리지원 프로그램, 예술치료, 연구동향, 중재연구

Ⅰ. 서 론

최근 국제이주 현상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3천2백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있고, 젊은 이주민의 수는 3천4백8십만 명에 달한다(OECD & UN-DESA, 2013). 이와 함께 이주학생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의 이주학생은 10-15%를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2012).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타 문화권의 여성과 한

* 주저자, kimeuiyeon2@naver.com

국 남성의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다(김영순, 이미정, 2010). 안전행정부(2014)에 의하면,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만 4,204명이었다. 일반 학령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8천에서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만 천명으로 향후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교육부, 2015).

우리 사회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민자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은 다문화학생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에 어려운데, 자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원래 거주자들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다문화학생은 부모 중 한쪽이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거나 어머니가 결혼이주 한 경우가 많다(양계민, 박주희, 2013). 이는 한국적 상황과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부터 다문화주의 이민정책과 사회정책을 채택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는 외국인 이주민이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지만 배타적 동화주의를 채택한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교육문제를 겪고 있다(최충옥, 2009). 이러한 점들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 또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을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국외 이주학생은 새로운 언어 습득, 문화 적응, 진로선택과 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Sinacore, Park-Saltzman, Mikhail, & Wada, 2011). 또한,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행동과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부족하다(Suárez-Orozco, Rhodes, & Milburn, 2009). 그 밖에 학교 내에서도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다(UCLA center, 2011).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국내 다문화학생에게도 나타나는데, 일반가정 청소년들과는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을 한 어머니로 인해 일반가정 학생이 겪어보지 못한 고민과 갈등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

된다(김경자, 2008). 더불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일반아동에 비해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았는데(송선진, 2007),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고,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도 나타나서 학교 밖으로 이탈하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2014년도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0.8%), 중학생(1.2%), 고등학생(2.1%)의 비율로 일반학생에 비해 높았다. 중단사유는 친구와 교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23.8%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학교공부(9.7%), 학교생활과 문화 차이(5.1%), 한국어를 잘 몰라서(5%)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이처럼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인간관계나 문화적 차이, 언어적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학생이 증가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다문화교육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살펴본 김민환(2010)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면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상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심리적 중재를 실시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 개선(이명주, 김갑숙, 2013), 초등학생 자기효능감 향상(서혜진, 최은영, 2014), 정체성과 관련된 자존감, 학교생활 적응(Hudley, Graham, & Taylor, 2007) 및 심리적 웰빙 향상(이희영, 김정호, 2012; Sin & Lyubomirsky, 2009)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증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학생에게 제공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앞서서 다문화를 경험한 국외연구까지 포함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중재연구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

1. 심리지원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psychological support program)은 심리 중재기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자원을 이용하고 대처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Yasuda & Watanabe, 2008). 이러한 중재기법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나 자조기술(self-help skills) 향상을 통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또한, 삶의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감정과 같은 심리적 웰빙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돕고, 정서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한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03). 심리 중재기법은 전통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 therapy), 대인관계 심리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가족치료(family therapy)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10). 보다 넓게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예술심리치료(예, 미술, 음악, 무용, 놀이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Fristad, Goldberg-Arnold, & Gavazzi, 2003; 구훈정, 최승미, 권정혜, 2012; 노용구, 2012).

2. 선행연구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연구로 Bal과 Perzigian(2013)는 학업이나 문제행동을 가진 이주학생을 대상으로 중재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중 2편의 논문은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중재를 했고, 4편의 논문은 부모-자녀관계 향상이나 정서 및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적 중재를 실시했다. 이주학생을 대

상으로 한 중재연구는 6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국내연구는 백용매, 류윤정(2011)의 문헌연구가 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논문 103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50%, 학교적응 20%, 이중문화 스트레스 10%, 정신건강 10%, 문화적응 5%, 스트레스가 5%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성희, 전종설(2013)은 다문화 프로그램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논문 총 44편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논문 중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험연구는 23편이었다. 그중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4편이었고, 나머지 9편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자기개념, 정서기능, 정체성, 사회기능, 문해능력 향상과 같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검토하는 관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출판되고 있는 연구까지 통합해서 검토한 경우가 전무하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미비한 연구부분을 파악하고, 연구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문헌고찰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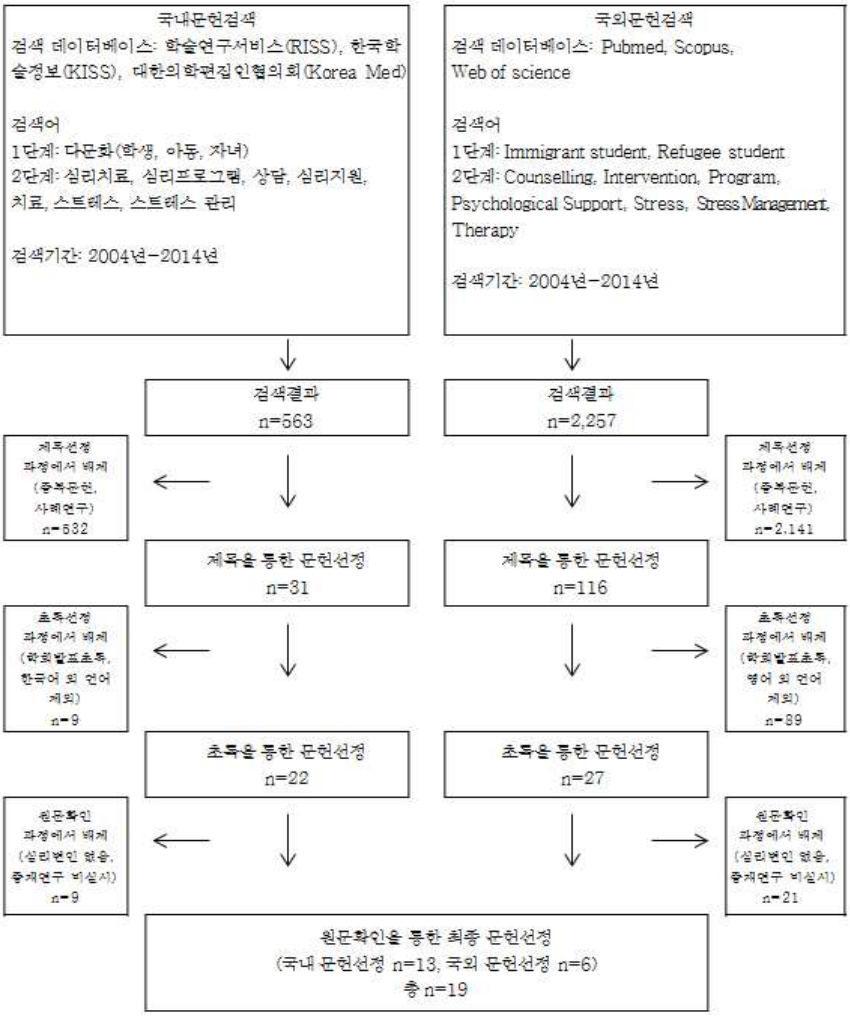
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PICO-SD(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기준을 참고하였다(Liberati, Altman, Tetzlaff, Mulrow, Gøtzsche, Ioannidis, et al., 2009). 문헌선정을 위해서는 핵심질문(key question)을 작성 하는데 PICO-SD를 활용하여 구체화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어머니가 결혼이주를 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 연구참여자는 이민(immigrant) 또는 난민(refugee)학생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키워드가 다른 이유는 국내외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중재 프로그램은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장소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기간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심리 중재기법을 활용한 경우이었다. 통제집단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문화학생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우울, 스트레스), 정체성(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적응(학교적응, 문화적응), 사회성(사회기술, 또래관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하였다. 연구설계는 중재연구에 해당하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단일군 전후설계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2. 문헌검색 전략 및 선정과정

국내외 문헌검색 전략과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국내 다문화학생과 국외 이주 및 난민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문헌선정과정에서 중복된 문헌, 사례연구, 심리변인이 없거나 중재연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학술대회 발표 초록,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문헌은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문헌선정의 전 과정은 세 명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문헌선정과정에서 보류판정이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 명의 연구자가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3. 자료분석

선정된 심리지원 프로그램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분석내용

연도, 저자, 참여자(나이, 집단),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측정도구, 연구결과로 기술하였으며, 별도로 국외문헌의 경우 참여자 국가와 연구실행 국가를 추가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

1)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 선정 문헌과 출판 동향

최종적으로 선정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문헌은 13편이었다〈표 1〉. 심리지원 프로그램 출판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에 각 1편(7.7%), 2011년 4편(30.8%), 2010년 3편(23.1%), 2009년 2편(15.4%)이었다.

2) 연구참여자 집단

연구참여자 연령의 범위는 최소 6세, 최고 13세이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박수정, 최연실, 2009), 복지관(박현주, 2014),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송성섭, 김민규, 2013; 염승희, 신현균, 오수성, 2010)에서 모집하였고, 다른 문헌은 모집방법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부모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는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기타(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페루)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연구설계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 사후로 이루어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8편(61.5%), 단일집단의 사전, 사후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 설계 5편(38.5%)이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단독으로 활용한 연구 7편(53.8%), 질문지와 질적연구를

함께 시행한 연구 3편(23.1%), 질문지와 심리검사 기법인 투사검사를 실시한 연구 2편(15.4%), 질문지와 행동관찰지를 이용한 연구는 1편(7.7%)이었다.

4) 중재 프로그램 장소 및 기간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학교 7개(53.8%), 지역아동센터 2개(15.4%), 공부방 1개(7.7%), 복지관 1개(7.7%),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7.7%), 지역만 기술한 문헌이 1개(7.7%)이었다. 프로그램 기간은 평균 2.3개월, 평균 회기 수는 12.4회기로 실시되었다. 추후검사는 13개 문헌 전부 실시하지 않았다.

5)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심리적 어려움, 정체성,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성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은 수줍음 감소,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이었고, 정체성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개념 증진이었다. 심리사회적 적응은 학교적응, 문화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이 있었고, 사회성 증진으로는 사회성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프로그램의 중재목표로 설정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집단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독서치료, 심상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품성계발 프로그램,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미술치료에서는 시각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과 작품 완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체성과 사회성, 심리적 어려움의 완화를 시도하였다. 무용/동작치료는 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서 움직임을 활용한 비언어적 정신치료이다.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위축감 완화를 위해 사용했다. 독서치료는 동화책을 활용하여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수줍음 감소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심상치료(guided mental imagery psychotherapy)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증상과 내면을 다루어 마음의 기능 및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정체성과 사회성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문화와 관련된 놀이와 게임 및 교육을 바

탕으로 전통문화(노래, 춤, 의상), 부모 국가의 이해, 스포츠 활동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문화적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의 주제로 게임과 집단 상담을 융합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증진토록 하였다.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말하기와 듣기, 그림그리기, 역할연습 등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접근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사회성,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6) 측정도구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척도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중 내재화 문제 22문항, 한국아동 청소년 성격검사(Korea Children & Youth Personality) 311문항, 스트레스 질문지 16문항, 이중문화 스트레스 척도 10문항,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Korean-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32문항, 수줍음 검사도구 31문항이었다. 정체성 관련 측정도구는 자기개념 척도 14문항,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32문항, 아동용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33문항이었다. 심리사회 적응과 관련된 도구는 학교적응 검사 20문항, 학교생활적응 검사 30문항, 문화적응 척도 48문항이었다. 사회성 증진을 측정한 척도는 사회성 척도 20문항 또는 25문항, 사회적 기술 평가도구 39문항이었다.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13편 모두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7) 프로그램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수줍음, 이중문화 스트레스, 부정적 자동사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 정체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개념, 더불어 사회성과 관련된 또래관계, 사회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 국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n=13)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결과
	나이 (세)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박현주 (2014)	11-12	실험집단: 7명 (남 4, 여 3) 통제집단: 7명(남 3, 여 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행동관찰지	복지관	ADHD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3개월 총 13회 주 1회 (1회기 90분) 추후검사 없음	사회성	사회성 중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송성섭 외 (2013)	10-13	단일집단: 49명 (남 25, 여 24)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질적연구	대학교	문화적응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총 13회기 추후검사 없음	문화적응	문화적응 중 문화정체감, 정서적 무기력감, 문화적 개방성, 사회적 소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혜진 외 (2012)	8-12	실험집단: 7명 (남 4, 여 3) 통제집단: 6명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투사검사	지역 아동 센터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5개월 총 9회 주 1회 (1회기 60-90분) 추후검사 없음	아동용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중 활력성, 낙관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김인숙 외 (2011)	9-12	실험집단: 12명 (남 6, 여 6) 통제집단: 12명(남 7, 여 5)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초등 학교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3개월 총 24회 주 2회 (1회기 60분) 추후검사 없음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의 내재화문제 학교생활 적응	내재화 문제의 하위변인(사회적 위축, 불안 · 우울)은 감소,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학교환경, 학업관계, 교우관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 (계속)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결과
	나이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김종운 외 (2011)	11-13	실험집단: 8명(남 6, 여 2) 통제집단: 7명(남 5, 여 2)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적연구 질문지	초등 학교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위한 품성계발 프로그램	2개월 총 12회 (1회기 50분) 추후검사 없음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중 하위변인인 학교수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미나 외 (2011)	8-10	실험집단: 8명(남 5, 여 3) 통제집단: 8명(남 4, 여 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초등 학교	수줍음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3개월 총 12회 주 1회 추후검사 없음	수줍음 검사 도구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수줍음은 감소, 사회적 기술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LEE 외 (2010)	9-12	단일집단: 6명 (남 2, 여 4) 모: 4명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서울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와 부모교육	1개월 총 10회 주 2회 (1회기 90분) 추후검사 없음	자아존중감 사회기술평정: 학생용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중 하위변인(일반적, 사회적, 가정, 학교)와 사회기술 중 하위변인(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조절), 부모 효능감은 인지적 요인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 (계속)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결과
	나이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염승희 외 (2010)	10–13	실험집단: 9명(남 7, 여 2) 통제집단: 8명(남 5, 여 3)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초등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부정적 자동사고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	2개월 총 10회 (1회기 60분) 추후검사 없음	스트레스 질문지 사회기술평정 부정적 자동사고	부정적 자동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박선희 (2010)	10–13	단일집단: 7명(남 3, 여 4)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투사검사	초등 학교 미술실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2개월 총 14회 주 2회 (1회기 60분) 추후검사 없음	이중문화 스트레스 한국 아동 · 청소년 성격검사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 또래관계증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박수정 외 (2009)	6–7	실험집단: 7명(남 3, 여 4) 통제집단: 7명 (남 3, 여 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1개월 총 9회 주 2회 (1회기 80–90분) 추후검사 없음	자아존중감 사회성	자아존중감 중 하위변인(일반적, 사회적, 가정, 학교), 사회성 하위변인(사교성, 대인관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윤지인 외 (2009)	7–10	단일집단: 8명(남 6, 여 2)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지역 아동 센터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심상치료	1개월 총 12회 주 2회 (1회기 90분) 추후검사 없음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중 하위변인(사회적, 학교)과 학교생활적응 중 하위변인(친구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역사, 문화 등에 보이는 관심)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 (계속)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결과
	나이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이선미 외 (2009)	초등 학교 저학년	실험집단: 9명 통제집단: 9명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공부방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1개월 총 10회 주 2회 (1회기 40분) 추후검사 없음	학교적응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신민자 외 (2008)	8-10	단일집단: 10명(남 4, 여 6)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질적연구	초등 학교 집단 상담실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3개월 총 13회 주 1회 (1회기 90분) 추후검사 없음	자기개념	자기개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2.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

1)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 선정 문헌과 출판 동향

〈표 2〉는 국외 이주 및 난민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기술한 표이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문헌은 총 6편이었다. 출판동향은 2006년, 2009년, 2012년, 2014년에 각 1편(16.7%), 2007년도 2편(33.3%)이었다.

2) 연구참여자 집단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 및 난민학생의 나이는 최소 13세, 최고 21세이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방법은 다민족 학교와 이민 및 난민학교에서 모집하였다. 부모의 국가는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유럽, 중앙아프리카, 아시아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연구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한 후 사전, 사후를 검증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3편(50%), 무작위 교차설계 1편(16.7%)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를 평가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1편(16.7%),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설계가 1편(16.7%)이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가 5편(83.3%), 질문지와 질적연구를 함께 시행한 연구가 1편(16.7%)이었다.

4) 중재 프로그램 장소 및 기간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학교 5개(83.3%), 지역사회 1개(16.7%)이었고, 연구기간은 평균 5개월, 평균 회기 수는 15.7회기로 나타났다. 6편 문헌 전부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이민 및 난민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심리적 어려움, 정체성,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성, 진로로 구분되었다. 심리적 어려움의 세부적인 목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서 및 문제행동 감소이었고, 정체성의 목표는 민족적 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이었다. 심리사회적 적응의 세부적인 목표는 문화적응과 학교적응 증진, 사회성은 사회적 유대감, 부모 및 또래관계 향상을 세부목표로 하였다. 진로는 진로결정 및 진학과 관련된 것을 세부적인 목표로 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드라마 워크숍(drama workshop)과 삶의 기술 트레이닝, 진로탐색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음악치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워크숍은 음악, 시각예술, 연극을 융합한 연극기법을 바탕으로 이민 및 난민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 시키고자 하였다. 삶의 기술 트레이닝은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써 롤 플레잉(role-playing), 브레인스토밍(brain stoming),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난민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집단별로 진로결정에 관련있는 문화, 사회, 가족의 요인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과제수행 및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와 학업에 대한 결정력을 증진 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문화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음악치료는 춤과 즉흥적인 악기연주, 유행하는 노래 공유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적응 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실행되었다.

6) 측정도구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한 도구는 7개의 스트레스 영역평가(The Problem Questionnaire) 60문항, 강점·난점 질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25문항, 아동행동문제평가(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138문항이었다. 진로와 관

련된 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25문항, 직업상담에 대한 태도척도(Attitudes Toward Career Counseling Scale) 16문항,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18문항,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척도(Academic, College Career Help-Seeking Scale) 9문항이었다. 사회성과 관련된 도구는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12문항,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 8문항이었다. 정체성을 측정한 도구는 민족적 정체감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12문항,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10문항, 집단 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 Scale) 16문항이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한 연구는 Rousseau et al.(2007)에서 프랑스판과 영어판 강점 · 난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7) 프로그램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스트레스(학교, 장래, 가정)와 문제행동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정체성에서는 집단 자아존중감 증가, 사회성에서는 부모 및 또래애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진로에서는 진로미결정, 직업상담의 낙인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표 2〉 국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n=6)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 실행 국가	연구결과
	나이	참여자 국가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Rousseau et al. (2014)	12-15	캐나다 및 캐나다 외 출생	이민 및 난민 청소년 실험집단: 157명(여 64, 남 89, 미기재 4) 통제집단: 140명(여 64, 남 71, 미기재 5) 지도교사: 180명(여 74, 남 102, 미기재 4)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다민족 학교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실기반 드라마 워크숍 특별 수업	4개월 총 12회 주 1회 (1회기 90분) 추후검사 없음	강점 · 난점 질문지	캐나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Yankey et al. (2012)	13-19	티벳 인도 네팔 부탄	난민 청소년 실험집단: 150명 통제집단: 150명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티벳 어린이 마을 (난민 학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삶의 기술 트레이닝	7개월 총 45회 추후검사 없음	7개의 스트레스 영역평가 문제 질문지	티벳	학교, 장래, 가정 스트레스가 유의미 하게 감소되었다.

〈표 2〉 계속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 실행 국가	연구결과
	나이	참여자 국가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Shea et al. (2009)	17-21	중국	이민 청소년 - 연구 1 실험집단: 17명 (남 8, 여 9) 통제집단: 15명 (남. 8, 여. 7) - 연구 2 실험집단: 27명 (남 11, 여 16) 통제집단: 27명 (남 13, 여 1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질적연구	대안 고등 학교	진로탐색 및 진로자원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2개월 총 8회 주 1회 (1회기 1시간) 추후검사 없음	진로결정 척도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척도 단축형-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직업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개정판 민족적 정체감 척도	미국	진로미결정, 직업상담태도의 낙인 요인, 집단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은 유의미 하게 증가되었다.
Rousseau et al. (2007)	12-18	아시아 동유럽 남아메리카 대륙	이민 및 난민 청소년 실험집단: 66명 (남 40, 여 26) 통제집단: 57명 (남 30, 여 27)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질문지	다민족학교	정서, 문제행동 예방과 성적향상을 위한 교실 드라마 요법 프로그램	3개월 총 9회 주 1회 (1회기 75분) 추후검사 없음	강점 · 난점 질문지 자아존중감 학부성적	캐나다	강점과 난점,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수학능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표 2〉 계속

저자 (년도)	연구참여자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			측정도구	연구 실행 국가	연구결과
	나이	참여자 국가	집단 (명)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			
Yeh et al. (2007)	17-20	중국	이민청소년 단일집단: 23명(여 13, 남 10)	단일군 전후설계 질문지	이민자 고등학교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년(주중 및 방과 후 점심식사 및 심화활동) 추후검사 없음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척도 사회적 유대감 척도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미국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Baker et al. (2006)	11-15	수단 이란 리베리안 르완다 에티오피아 콩고	난민학생 실험집단 1: 15명(남 5, 여 10) 실험집단 2: 16명(남 6, 여 10)	무작위 교차설계 질문지	이민 및 난민 고등학교	학교에 지장을 주는 부적응행동 관리를 위한 음악치료	2개월 총 20회 주 2회 (1회기 30-40분) 추후검사 없음	아동문제행동 평가	호주	과잉행동과 공격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Ⅴ. 논의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국외 프로그램 대상자는 최소연령이 11세, 최고연령이 21세로 나타났다. 국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최고연령이 13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학생의 초등학교 재학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 중·고등학생의 경우 위축,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민족정체성 문제를 가질 수 있다(김승경, 2013; Lustig, Kia-Keating, Knight, Geltman, Ellis, Kinzie, & Saxe, 2004). 따라서 현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도입기에 있는 한국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이주 안정기에 들어선 국가들은 자국에서 태어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도입국을 한 이주 혹은 난민학생이 주요한 연구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거주지 혹은 출생지 중심의 다문화주의적 사회기반과 인식의 차이를 시사한다(최충옥, 2009).

둘째, 중재효과 검증을 실시할 때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연구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었다(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2008).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가 50%이지만, 국내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61.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는 없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설계 즉, 무작위 대조군 연구설계를 통한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논문 편수에 있어서는 국내 논문이 13편, 국외 논문 6편으로 국내 논문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주 도입기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의 국내 다문화학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한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

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는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50명으로, 평균 69명이었다. 한편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6명부터 많게는 49명으로, 연구참여자는 평균 8명이었다. 국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평균 8명인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은 인원수이다. Kim, Tsuda, Matsuda, & Horiuchi(2011)는 심리적 중재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6편을 리뷰하였다. 그 결과 100명에서 200명이 참가한 논문이 44%, 100명 이하는 47%였다. 100명 이하로 참여한 논문의 평균참여자는 41명이었다. 즉, 100명 이상이 참여한 논문이 절반을 넘는 것을 알 수 있고, 100명 이하가 참여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평균참여자의 수는 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적은 이유는 모집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으로 예상한다. 특히 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학생이 일반학생 수와 비교하면 소수라는 점과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선입견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참여를 꺼릴 수 있다(남성희, 전종설, 2013). 한편, 국외연구의 참여자 모집방법은 다민족학교나 이민 및 난민학교에서 모집되었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에서도 공립 다문화학교와 같이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학교에서 중재연구 실시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를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국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83.3%)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의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된 경우(53.8%)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진행된 경우(46.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율이 국외 연구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에 의하면,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선입견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장소를 학교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 외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히려 학교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

료된다.

다섯째, 국내외 연구 모두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측정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로 다문화학생의 문제점에만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 즉 이중언어가능, 이중문화 수용성과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기법은 예술심리치료(47.4%)로 드라마 워크숍, 음악치료, 집단미술치료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예술심리치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심리적 중재연구를 리뷰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Hodges, Walker, Kleiboer, Ramirez, Richardson, Velikova, & Sharpe (2011)에 의하면 심리적 중재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이완술이 80%, 다음으로 심리교육 68%, 인지행동치료 67%, 상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예술심리치료가 언어가 서툴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내 연구를 보면 13편 중 6편(46.1%)이 집단미술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참여자가 대부분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연령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프로그램(17-20세)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17-21세)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아동기의 초등학생과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심리 중재기법 즉, 이완술, 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 이미지요법, 스트레스 대처기술, 행동요법, 바이오 피드백과 같이 다양한 심리 중재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프로그램 기간 및 횟수를 분석한 결과, 국외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평균 실시횟수는 15.7회로 실시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평균 실시횟수는 12.4회, 실시기간은 평균 2.3개월이었다. 또한, 국내외 연구 모두 추후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Sansom-Daly, Peate, Wakefield,

& Bryant(2012)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중재를 실시한 25편의 논문을 리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개월 이상 중재를 실시한 논문(12편)의 평균 중재기간은 7.1개월이었고, 추후기간은 25편 중 18편의 연구에서 실시하였는데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4개월까지였다. 즉,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와는 중재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후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짧아지면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식,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과 추후검사를 설정하여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간설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해야 한다.

여덟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각 설문지의 문항이 적게는 8문항부터 많게는 3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문항이 많은 경우는 주된 연구참여자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설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응답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 한 편의 논문(Rousseau et al., 2014)에서만 두 종류의 언어(프랑스, 영어)로 질문지를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도입국학생의 경우는 이주한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를 배려한 적절한 수의 문항수와 언어적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언어 버전의 질문지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외 연구 간에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국외연구에서는 진로 및 학업과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다문화가 앞서 진행된 나라에서는 이주학생이나 난민학생의 사회적 진출이나 진학에 중점을 둔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다문화교육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연구를 살펴

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국내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외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이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밝혔다. 즉, 다문화학생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심리중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완술 보다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다.

셋째, 국외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이주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학생은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점차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갈 것이다. 다문화학생이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달 및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단계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내연구는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79%의 연구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설계(47.4%)와 단일군 전후연구설계(31.6%)로, 과학적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는 부족했다. 즉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를 통한 과학적 근거수준이 높은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중재연구를 실시한 논문에 대한 질 평가와 메타분석(meta-analysis)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논문의 질 평가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근거자료들을 판별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연구의 공통적 효과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메타분석의 문제점으로 타당도가 낮은 연구와 높은 연구의 결과를 구별하지 않고 종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왜곡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강현, 2015). 또한,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각 집단에 배정되었을 때 선택 비뚤림의 위험이 증가한다. 즉 비무작위 설계의 경우 중재효과를 과소추정 혹은 과다추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 단일군 전후연구 및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과 비무작위 설계인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에서 시행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생을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준 높은 근거를 갖추기 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현(2015). 메타분석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들. Hanyang Medical Reviews, 35, 23-32.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58823&mode=view에서 2015.05.01.

구훈정, 최승미, 권정혜(2012). 국내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효과 검증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과 메타분석: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95-2010).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43-73.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환(2010).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 61-86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아동권리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광, 106, 1-87.

김승경(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Ⅰ.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2013). 1-203.

김영순, 이미정(2010). 다문화교육사의 실천적 역량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1, 77-94.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 57-73.

김종운, 박춘자(2011).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문화연구, 27, 41-59.

남성희, 전종설(2013). 아동, 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분석. 청소년학연구, 20, 129-158.

노용구(2012).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603-611.

박선희(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 25-51.

박수정, 최연실(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 2521-2538.

박현주(2014).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ADHD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 183-204.

백용매, 류윤정(2011).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과 현황분석. 인문과학연구, 16, 83-108.

서혜진, 최은영(2014). 사회학습원리에 따른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1, 771-794.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섭, 김민규(2013).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1, 179-196.

신민자, 이진숙(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 1-16.

안전행정부(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http://m.mospa.go.kr/mbl/bbs/type001/mobile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FfqYuRsUZ0CcewcJyN7kglAaYypYf1eG0tJQmyqyETdMpJ7WqthGr6g7aocpy1i1.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2492 에서 2015. 04. 29.

양계민, 박주희(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Ⅰ: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45.

여성가족부(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0725&conn_path=I3에서 2015.04.23.

염승희, 신현균, 오수성(2010).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853-873.

윤지인, 최범식(2009). GMIP심상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 127-146.

이명주, 김갑숙(2013).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 349-375.

이미나, 선애순(2011). 다문화가정 수줍음 아동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효과. 독서치료

연구, 4, 115-129.

이선미, 이선화(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상담학연구, 10, 2273-2286.

Lee, J. E., 한미령, 장은진(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및 부모교육 병합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853-864.

이혜진, 장석진(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19, 837-858.

이희영, 김정호(2012).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가 여자대학생의 우울과 웰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43-63.

최충옥(2009).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9, 175-191.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10). Evidence-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the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a literature review. Retrieved from https://www.psychology.org.au/Assets/Files/Evidence-Based-Psychological-Interventions.pdf

Baker, F., & Carolyn, J. (2006). The effect of music therapy services on classroom behaviours of newly arrived refugee students in Australia—a pilot study.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1*, 249-260.

Bal, A., & Perzigian, A. B. T. (2013).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or immigrant students experiencing behavioral and academic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36*, 5-28.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2008). *Systematic reviews: CRD's guidance for undertaking reviews in health care*.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York, UK.

Fristad, M. A., Goldberg-Arnold, J. S., & Gavazzi, S. M. (2003). Multi-family psychoeducation groups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with mood disord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491-504.

Hodges, L. J., Walker, J., Kleiboer, A. M., Ramirez, A. J., Richardson, A., Velikova, G., & Sharpe, M. (2011). What is a psychological intervention? A metareview and practical proposal. *Psycho-Oncology, 20,* 470-478.

Hudley, C., Graham, S., & Taylor, A. (2007). Reducing aggressive behavior and increasing motivation in school: The evolution of an intervention to

strengthen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42,* 251-26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03).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support - a training manual, 1st edi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Retrieved from 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se/library/community-based-psychological-support-training-manual-1st-edition

Kim, E., Tsuda, A., Matsuda, T., & Horiuchi, S. (2011). Recent trends in preventive stress management in Japan. *Kurume University Psychological Research, 10,* 164-175.

Liberati, A., Altman, D. G., Tetzlaff, J., Mulrow, C., Gøtzsche, P. C., & Ioannidis, J. P. A., et al. (2009). The PRISMA statement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of studies that evaluate healthcare intervention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BMJ, 339, b2700. doi: http://dx.doi.org/10.1136/bmj.b2700.

Lustig, S. L., Kia-Keating, M., Knight, W. G., Geltman, P., Ellis, H., Kinzie, J. D., & Saxe, G. N. (2004). Review of child and adolescent refugee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 24-36.

OECD & UN-DESA (2013). Wold Migration in Figures.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ls/mig/World-Migration-in-Figures.pdf

Rousseau, C., Beauregard, C., Daignault, K., Petrakos, H., Thombs, B. D., Steele, R., & Hechtman, L. (2014). A cluster randomized-controlled trial of a classroom-based drama workshop program to improve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in special classes, PLoS ONE 9, doi:10.1371/journal.pone.0104704

Rousseau, C., Benoit, M., Gauthier, M. F., Lacroix, L., Alain, N., Rojas, M. V., & Bourassa, D. (2007). Classroom drama therapy program for immigrant and refugee adolescents: A pilot study.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451-465.

Sansom-Daly, U. M., Peate, M., Wakefield, C. E., Bryant, R. A., & Cohn, R. J. (2012).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living with chronic illness. *Health Psychology, 31,*

380-393.

Shea, M., Ma, P. W. W., Yeh, C. J., Lee, S. J., & Pituc, S. T. (2009). Exploratory studies on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for urban Chinese immigrant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doi:10.1177/1069072709334246

Sin, N. & Lyubomirsky, S. (2009). Enhancing well-being and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A practice-friendly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 467-487.

Sinacore, A. L., Park-Saltzman, J., Mikhail, A. M., & Wada, K. (2011). Falling through the cracks: academic and career challenges faced by immigrant graduate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45,* 168-187.

Suárez, O, C., Rhodes, J., & Milburn, M. (2009). Unraveling the immigrant paradox academic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mong recently arrived immigrant youth. *Youth & Society, 41,* 151-185.

U.S. census bureau (2012).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0.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prod/2012pubs/acs-19.pdf

UCLA center (2011).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enabling their success at school. Retrieved from http://smhp.psych.ucla.edu/pdfdocs/immigrant.pdf

Yankey, T., & Biswas, U. N. (2012). Life skills training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to reduce stress among Tibet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Refugee Studies,* doi:10.1093/jrs/fer056

Yasuda, T. U., & Watanabe, N. T. (2008). *Method of program evaluation.* Tokyo, Shinyosha.

Yeh, C. J., Ching, A. M., Okubo, Y., & Luthar, S. S. (2007). Development of a mentoring program for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cultural adjustment. *Adolescence, 42,* 733-747.

Abstract

An Analysis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Students

Kim, Euiyeon (Hannuri Multicultural School)
Kim, Misoon · Huang, Haiying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PSP)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Korea and globally. A review of PSP is related with literature published from 2004-2014. PICO-SD(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strategy was used for research the PSP. The data were taken from RISS, KISS, Korea Med, Pubmed, Scopus and Web of science. A total of 2,820 were reviewed using the analysis guidelines, 19 references(13 Korea and 6 globally) matched the criteria. The data regarding the type of study desig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of PSP, outcomes measures and results was recor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age ranges 6–21 years old. Second, 47.4% references wer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and 31.6% references were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in international references. Third, art therapy(47.4%) was commonly used in PSP globally. Fourth, most of the PSP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results implicated positive outcome and effective result for PSP to the multicultural students.

None the less, a robust research design in PSP is needed to accumulate strong scientific evidence.

[Keyword] Multicultural student,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Art therapy, Research trend, Intervention